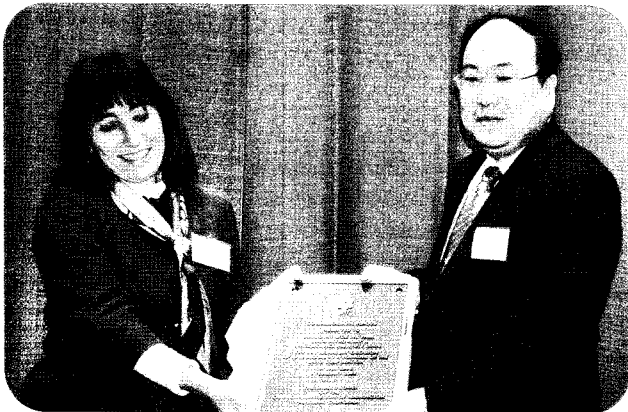


● 거대 마젤란 망원경(GMT) 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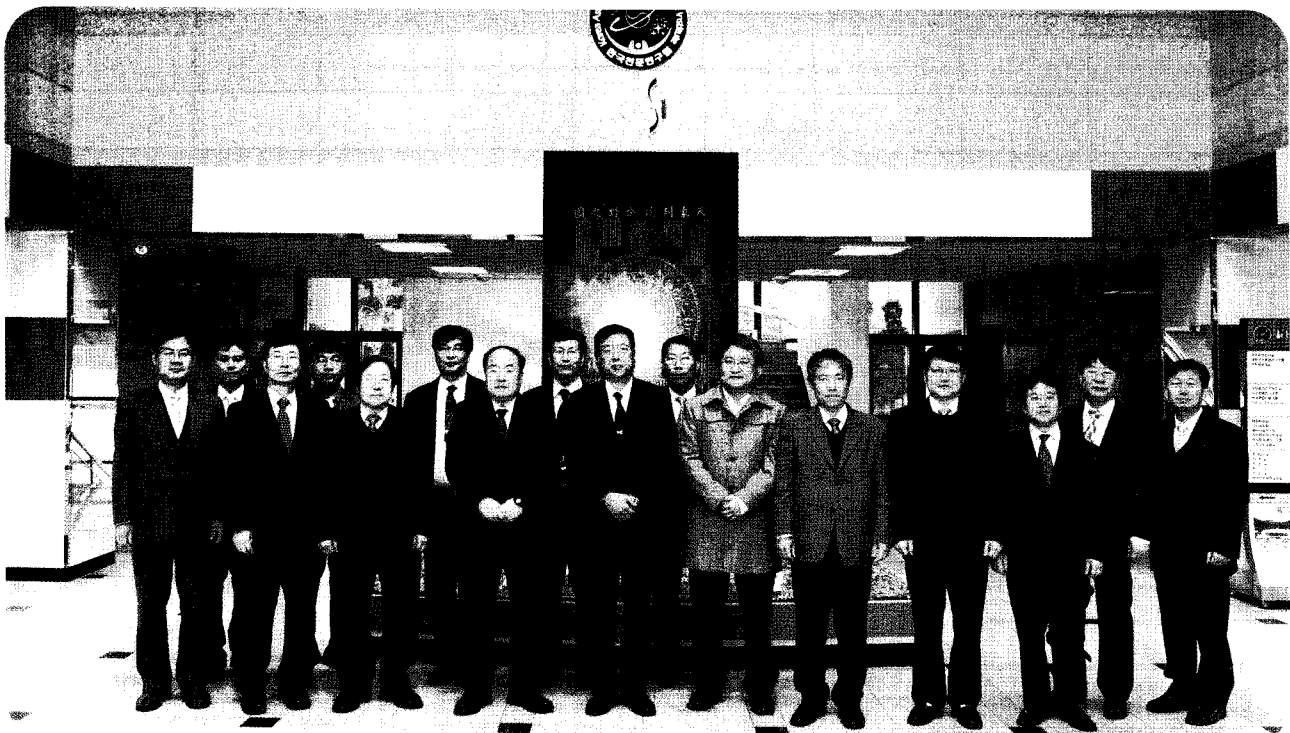


지난 2월 7일 미국 카네기 천문대에서 GMT (Giant Magellan Telescope)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조인식이 열렸다. GMT는 구경 25m의 세계 최대급 지상용 광학망원경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관측지 중의 한 곳인 칠레에 설치되어 2019년경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 거대 과학 프로젝트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하버드대학, 스미소니언 국립천문대, 아리조나대학, 텍사스 Austin 대학, 텍사스 A&M 대학과, 호주의 호주국립대와 호주 내 13개 대학과 천문대가 연합하여 설립한 호주천문재단 (AAL, Astronomy Australia Limited)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표준(연) 등의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은 GMT 망원경 건설비의 10% 지분으로 참여하여 망원경의 관측시간 중 10%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조인식에는 박석재 원장과 사업책임자인 박병곤 부장이 참석하였으며, GMT 의장인 Wendy Freedman 박사와 아리조나 Steward 천문대장인 Peter Strittmatter 박사 등의 천문학자와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

식 서명행사를 축하하고 GMT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 2008년 기관평가 현장실사 실시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2월 19일 “2008년 기관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의 실사는 연구부문과 경영부문으로 분리되어 실시되었으며, 서울대 정종평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연구부문에서는 연세대 변용익 교수 등 8인, 경영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태영 박사 등 8인이 평가를 담당하였다. 한편, 금번 실사의 특이사항은 황우(연)과 생명(연)의 경영부문 실사가 같은 날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실사의 첫 번째 순서에서 박석재 원장은 평가단에게 기관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질타와 조언 및 정책제언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박필호 선임연구부장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의 종합성과를 브리핑하였다. 현장실사의 내용으로서, 먼저 연구부문에서는 우리 기관이 2008년 상반기에 제시한 8개의 세부 성과목표들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를 정밀하게 검증하였으며, 경영부문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가 제시한 9개의 평가지표들에 해당하는 실적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석재 원장의 기관장직 연임에 따른 새로운 3개년 경영목표와 기관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경영시스템 구축, 논문 생산성 및 질적 수준의 비약적 향상, 태양계를 닮은 외계행성 발견,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 구축, 대형 광학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사업 확보 등의 대형 실적들을 제시하였으며, 평가단에서는 세부 성과목표 및 평가항목별로 정밀 검증과 아울러 컨설팅 성격의 정책제언들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국민은행이 기증한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 Car)’ 체험을 끝으로 이날의 실사가 마무리 되었다.



● 2010년(경인년) 월력요항 발표

우리 연구원은 2010년의 월력요항을 발표하였다. 2010년은 52일의 일요일과 14일의 법정공휴일을 합하여 총 공휴일 수가 66일이 되나, 일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실제 공휴일 수는 62일이다. 이것은 2009년의 실제 공휴일 수와 동일하다.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인 경우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총 휴일 수는 118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한 실제 휴일 수는 112일이 된다. 이 밖에 월력요항에는 24절기에 해당하는 날짜, 음력·양력 대조, 음력·양력 매월 1일의 일진, 연간 휴일 수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09 우주전파워크숍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13일 양일간 본원 대회의실에서 우주전파분과와 공동으로 “09 우주전파워크숍(KVN 사이언스를 중심으로)”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을 이용하여 활동성은하핵, 만기형 별, 별단생 영역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관심을 갖는 국내 천문학자 40여명과 관련 전공 학생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KVN을 이용한 KVN Key Science Project(KSP)를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제안된 KSP는 3월 12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될 ‘2009 VLBI 동아시아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KVN 안테나를 단일경으로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대략 14m 전파망원경의 다중빔 시스템, 서울대 6m 전파망원경, 우리 연구원 태양전파 관측시스템 등을 이용한 연구과제도 제안되었다.

● 남극대륙기지 활용 정책기획 워크숍

지난 2월 12일에서 13일 동안 은하수 홀에서 “제2차 남극대륙기지 활용 정책기획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우리 연구원과 극지연구소가 작년 9월 17일에 남북극 우주과학 연구협력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후, 대외기관의 연구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5개의 중점연구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세계 선도급 극지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외에 남극대륙기지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한국에너지기술원), 극지의학(고려대 의과대학), 극지공학(한국건설기술원),

인공위성 운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무인로봇(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제10회 이동천체관 개최

지난 2월 4일에 경남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제10회 이동천체관”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일반인들의 천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열렸다. 이날 약 350여명의 일반인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은 새하얀 눈 위에서 천문학 강연과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 Car)’ 및 소형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을 진행하였다.



● 송유근 군, 한국천문연구원 석사과정 입학

지난 2월 25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강당에서 “2009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가졌다. 올해 박사 27명, 석사 87명 등 114명의 대학원생이 입학할 예정이며, 우리 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에는 송유근 군이 입학하였다. 송유근 군은 지난 23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1세의 나이로 입학하여 최연소 대학원생이라는 기록에 이어, 최연소 석사 또는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각 캠퍼스인 출연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하였고,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재학생 우준성 학생의 피아노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UST는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진과 최첨단 실험 장비들을 활용해 연구를 중심으로 석·박사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있다.